

구텐베르크 은하계와 음악*

김효경

성균관대학교, 알테무지크 서울

목차



1. 서론
2. 본론
 - 1) 구텐베르크 은하계 고찰
 - 2) 구텐베르크 은하계 속의 음악
 - 3) 미디어와 음악
3. 결론

* 본 연구는 김효경 박사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요약문

미디어 학자 마샬 맥루언은 구텐베르크 은하계라는 단어를 통하여 인쇄술이 인간에게 부여한 새로운 환경을 논하였다. 구술, 필사, 인쇄로 이어진 미디어의 진화는 인간의 삶에 있어 부수적인 존재였던 미디어를 하나의 환경으로 확장시켰고, 구텐베르크 은하계 속에서 인간의 삶은 매우 다르게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개발이 인간의 삶을 넘어 음악, 특히 낭만주의 음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하여 집중해보고자 한다. 인쇄술이 낳은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같은 공간 아래 있을 때 정보 전달이 수월했던 구술, 필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쇄술의 개발은 지식과 정보를 그 질과 양에 있어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이전의 정보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 책 속의 지식과 정보들은 신화의 세계와 같이 실생활을 넘어선 다른 세상으로 지식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지식의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의 변화는 자연스레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켰고, 사고의 확장은 곧 근대 서양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인쇄 악보를 매개로하여 점진적으로 대중화되던 음악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인쇄술이 형성시킨 구텐베르크 은하계는 실용 음악에 가까웠던 이전의 음악 형태와 달리 음악 안에 신비와 환상의 세계를 심어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낭만주의라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시킨다. 본 연구는 구텐베르크 은하계가 변화시킨 음악, 특히 낭만주의 음악에 집중하여, 미디어와 음악의 상관성을 증명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맥루언, 미디어, 구텐베르크 은하계, 인쇄술, 인쇄 악보, 서양 음악, 낭만 음악

1. 서론

미디어학자 마셜 맥루언(Marshall McLuhan)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았다. 구술이 주된 미디어였던 시대를 지나, 구술과 필사가 공존하던 시대 그리고 인쇄 기술의 발달이 형성시킨 활자 미디어의 세계가 바로 맥루언의 눈에 비친 인간 역사였다. 맥루언은 인간의 역사 중 인쇄술의 개발로 인한 활자 시대의 도래를 ‘구텐베르크 은하계’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소통함에 있어 물리적 제약이 있었던 구술과 필사의 시대와 달리 인쇄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의 대량 생산은 인간 생활의 곳곳에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¹ 미디어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 본 맥루언의 관점은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숨 가쁘게 진화하고 있는 미디어의 진화와 이를 통한 세계의 변화를 예견하였다는 점에 있어 의의를 갖는다. 정보를 담아내는 미디어를 부수적 도구로 이해하던 관점이 팽배하던 시기에 맥루언은 도구로서의 미디어가 아닌 정보의 질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조성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예견하였던 것이다. 맥루언의 예견대로 미디어가 새로운 사회 형성의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늘날, 미디어와 음악의 상호성, 특히 인쇄술과 음악의 상호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음악 그리고 미디어의 진화에 따른 미래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기준이 될 것이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예술은 늘 동시대인들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었다. 예술 작품은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며 동시대인들과 교감하였고, 인간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였다. 그러하기에 시대정신과 음악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전기 기술의 개발을 기점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기술과 수 백 년의 역사 속에서 뿌리박혀 서서히 진화해 온 서양 음악과의 상관성 연구는 그리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미디어와 음악을 바라볼 때 기준으로 삼을만한 뚜렷한 관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

¹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7, 5-11쪽.

이다. 이로 인하여 혹자는 기술이 발전시킨 미디어 사회 속의 서양 음악은 이미 파괴되었다고 탄식한다.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음악의 자리는 이미 사라져버렸으며,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²

본 연구는 예술의 위기 특히 클래식 음악이라 불리는 서양 음악의 위기가 언급되고 있는 오늘날을 배경으로 인쇄술의 개발과 이로 인한 음악의 변화에 집중해보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세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는 인쇄술이 형성한 사회, 즉 ‘구텐베르크 은하계’에 대한 고찰이다. 맥루언이 주장한 구텐베르크 은하계는 인쇄술이 인간에게 제공한 새로운 공간이다. 이 공간 속에서 인간의 변화와 더불어 형성된 사회의 변화를 논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구텐베르크 은하계 속 음악에 대한 고찰이다. 인쇄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 음악은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아직 필사가에 의한 정보의 필사가 주된 미디어였던 시절, 음악 속에는 구술로 정보가 전해지던 구술성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인쇄 기술의 발달이 낳은 인쇄 악보는 작곡가들에게 더 넓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형성시켰고, 구텐베르크 은하계 아래서 영향을 받은 음악은 신비와 환상적 성격을 뚜렷이 나타낸다. 본 연구는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고찰함으로써, 인쇄술이 제공한 환경 속에서 음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위 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음악의 상관성을 전반적으로 고찰해보겠다.

2. 본론

1) 구텐베르크 은하계 고찰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Orality and Literacy*』의 저자 월터 옹(Walter Ong)은 활자 미디어가 낳은 시각 중심적 사고가 메시지를 신체로부터 분리시키

² Jacques Ellul, 『무의미의 제국』, 대장간, 2005.

고, 지식을 지식의 주체로부터 분리시켰다고 주장하였다.³ 옹의 주장에 의하면, 활자를 담아 인쇄한 책은 지식을 담아내는 '시각적 공간'을 새로이 창조한다. 책을 읽는 이들은 활자가 담겨져 있는 시각적 공간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공간 속에 들어가 새로운 지식을 만나고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이라는 시각적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지식의 획득은 인간을 현재 살고 있는 일상적 공간과 분리된 채 새로운 공간 속으로 진입하게 하였으며, 지식과 일상이 분리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⁴

그러나 책이라는 공간은 다른 감각들이 모두 소외된, 오로지 시각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인간은 시각만으로 세계를 인식하였고, 시각적 공간 안에 홀로 남는다. 다른 이들과 함께여야 지식의 공유가 가능했던 구술, 필사의 시대와 달리 책을 통한 지식의 습득은 홀로 지식과 대면하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한 것이다. 결국 구텐베르크 은하계라는 거대한 환경 속에서 인간은 책이 만든 공간 속에 홀로 간혀 시각의 지배를 받게 된다.⁵

맥루언과 옹의 주장에 따르면 활자 미디어는 지식을 일상으로부터 분리 시킴과 동시에 인간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지식은 더욱더 독자성을 얻어 추상화되고, 절대화되어갔다. 즉, 구텐베르크 은하계가 제공한 환경은 인간의 고립과 더불어 지식의 고립을 야기 시킨 것이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책의 대량 생산과 유통은 지식에 절대성을 부여하며, 지식의 가변성을 제거하였다.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과 상상력은 지식의 '절대성' 앞에서 제한되었고,⁶ 인간의 생각과 상상력의 제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책이라는 미디어 속 문자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³ 김영룡, 「뮤즈가 글쓰기를 처음 배울 적에-미디어 생태학의 구술성/문자성 논의와 시적자의 공간화」, 『외국문학연구』 제 36집, 2009, 18쪽.

⁴ Walter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1995, p.142.

⁵ 위의 책, p.142.

⁶ 김효경, 변혁, 「인쇄 약보에 관한 미디어적 고찰: J.S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푸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제16권 10호, 2016, 656-663쪽.

책이라는 미디어가 절대성을 지니고 있으며,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음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믿음이다. 인간은 책이 제공하는 시각적 공간 속에 들어가 일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홀로 창조했다. 맥루언은 이렇게 창조된 환경을 '구텐베르크 은하계'라 지칭한다.⁷ 본 연구는 책이 형성한 환경과 이와 함께 변화한 음악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문자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파생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중립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문자가 인간의 환경이 되면서 인간 사회에 끼친 영향과 더불어 이러한 영향들이 음악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증명해보고자 한다.

2) 구텐베르크 은하계 속의 음악

지식이 인간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추상화되었듯이, 인쇄 악보가 대중화되었던 19세기의 음악적 경향들은 점점 인간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인쇄 기술이 대중화되기 전 서양 음악은 대부분이 '실용 음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실용 음악'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일상 속에서 사용되기 위해 쓰인 음악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바흐의 음악이 인간 삶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작곡된 음악들이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고개를 갸우뚱 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바흐 음악의 대부분이 예배 의식을 위해 쓰인 음악들이었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예배는 일상이었고, 생활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용 음악으로서 바흐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배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흐의 대표작으로 꼽히는〈골드베르크 변주곡 *Goldberg Variation*〉이 당시 불면증을 앓고 있던 백작의 치료를 위해 작곡되었다는 점 등은 오늘날의 서양 음악에 대한 편견과 달리 인쇄 이전의 서양 음악이 인간과 인간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 용해되어 있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달은 이와 같이 밀접했던

⁷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7, 5-11쪽.

음악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리시켜, 음악을 인간의 일상으로부터 고립시킨다.⁸

20세기에 이르러 음악이 전기를 타고 직접 소리로 관객들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인간은 연주자를 통해 음악을 듣거나 직접 인쇄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방법밖에는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또한 음악을 연주하여 전달하는 연주자조차 악보를 통해 음악을 전달받았기에 20세기 이전 음악 환경을 형성시킨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인쇄 악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음악사에서 악보가 최초로 인쇄된 시기는 15세기였으나, 음악을 담아내는 미디어로 인쇄 악보가 확실한 입지를 굳힌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인쇄 시대 이전 필사 시대의 악보는 대부분 작곡가나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 필사되었으며 소량으로 생산되었기에 지인들에게 배포하는 수준으로 밖에는 제작될 수 없었다.⁹

그러나 인쇄 기술의 발달은 악보 생산의 대량화를 촉진시켰고, 악보의 대량화는 악보 시장의 형성과 함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편집자와 악보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자를 등장시킨다. 즉,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의 원리가 음악 환경 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¹⁰ 소규모로밖에 악보를 생산할 수 없었던 필사의 시대와 달리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한 악보의 대량 생산은 알 수 없는 대중을 위한 악보 제작으로 악보의 방향을 바꾸어놓는다. 시장의 논리 위에서 제작된 악보는 이전과 달리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되었고, 악보를 생산한 작곡가보다 대중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새로이 형성된 시장 경제의 흐름 속에서 인쇄 악보는 더 쉽게 대중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재단되었고, 악보의 재단은 악보의 표준화로 이어진다. 작곡가가 필사한 기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쉬운 연주를 위한 다양한 지침들이 편집자에 의해 기보되었고, 표준화 된 기보들이 악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악보를 기보한 작곡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음악이 해석되던 필사

⁸ Nick Groom, "The Condition of Muzak", *Popular Music and Society* 20(3), 1996, p.4.

⁹ 김효경, 변혁, 「인쇄 악보에 관한 미디어적 고찰: J.S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푸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제16권 10호, 2016, 661쪽.

¹⁰ 민은기, 「인쇄술의 발달이 16세기 서양음악사회에 미친 영향」, 『음악과 민족』 제28집, 2004, 383쪽.

시대와 달리 인쇄 악보 시대의 음악가들은 한 눈에 들어오게끔 쉽게 해석되고 제단 된 악보들을 통해 음악을 접하고 이해하였다.¹¹

편집자에 의해 깔끔하게 재단 된 인쇄 악보는 작곡가의 손에서 제작자, 편집자, 인쇄업자, 상인들의 손을 거쳐 실제 음악을 접할 이에게 전달된다. 악보 편집을 맡은 대부분의 편집자들이 출판사에 의해 고용된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이었기에 인쇄 악보를 손에 접한 사람들은 편집자들이 이미 재단해 놓은 인쇄 악보에 음악적 절대성을 부여하였고, 표준화되어 기보된 다양한 음악적 기호들은 아무런 반감 없이 수용되었다. 악보를 매매한 이들에게 인쇄 악보 속의 음악은 절대적이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또한 작곡가의 숨결이 아닌 기계에 의해 깔끔하게 인쇄된 악보 속의 음악은 인간의 일상이 아닌 악보라는 새로운 시각적 공간을 창조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인간의 삶 속에 용해되어 있는 음악이 아닌 다른 공간 속의 음악을 창조해내게 된다.¹²

구텐베르크 기술이 조성한 환경 속의 음악은 인쇄 악보라는 다른 공간 속에 존재했던 것이다. 지식이 책이라는 시각적 공간 속에 있었듯이, 음악은 인쇄 악보 속에 있었고, 일상과 동떨어진 예술로 음악의 방향을 몰아간다. 음악가들은 일상이 아닌 신비와 초월을 음악 속에 집어넣었으며, 인쇄술이 낳은 환경은 일상을 벗어나, 다른 공간 속에 있는 음악들을 선택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쇄 악보가 음악 미디어로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던 19세기의 음악 속에서 확연히 찾아볼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인간의 감정이나 신화와 같은 추상적 내용들이 음악의 소재로 빈번히 사용되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예술 사조가 낭만주의, 즉 자유로운 감성적 세계를 표현하는 사조였다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성을 얻은 음악적 흐름을 가늠케 한다.

11 김효경, 변혁, 「인쇄 악보에 관한 미디어적 고찰: J.S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푸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제16권 10호, 2016, 659쪽.

12 위의 책, 661쪽.

「낭만주의 음악에 관한 연구」(1998)의 저자 김 철은 낭만주의 예술이 “현실의 시간과 기회를 초월하여 영원한 것을 잡으려고 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려 하고, 미래로 나아가려 하고 우주 밖으로, 신비한 것”으로 가려고 한다고 서술한다. “질서, 균형, 절도 그리고 완전성을 추구하는 고전적 이상과는 대립하여, 낭만주의는 자유, 열정 그리고 얻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즐겨하지만, 그 목표가 결코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낭만적 예술은 불안한 동경과 갈망의 분위기에 싸여 있다.”¹³는 것이다. 낭만주의 예술, 낭만주의 음악은 일상이 아닌 우주 속에 있었다.

20세기 전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음악이 인간의 일상 속으로 다시 들어오기까지 19세기 음악은 현실을 초월한 이상의 세계 속에 있었다. 그리고 감정, 초월, 신비 등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음악 형식의 확장이 뒤따른다.

낭만주의 음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의 음악을 살펴보면 구텐베르크 은하계 속 음악의 주된 단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신화를 음악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는 바그너의 음악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신비를 추구했던 당시의 음악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우선 신화를 음악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는 바그너의 음악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신비를 추구했던 당시의 음악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극; ‘라인골드’를 중심으로」(2006)의 저자 이성률은 바그너 음악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바그너는 자신의 ‘니벨룽의 반지’중 ‘라인골드’에 등장하는 신들의 세계와 ‘발퀴레’와 ‘지크프리트’의 내용 설정 등에서 북유럽 신화 ‘에다’의 기본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북유럽 신화 ‘에다’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들을 살펴보면, 오딘(Odin), 프레이르(Freyr), 프레이야(Freyja) 그리고 로키(Loki) 등이 있다. 이 신들은 바그너의 ‘라인골드’에 유사한 이름과 역할로 등장한다. 북유럽 신화에서 널리 알려진 신 오딘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신으로 발퀴레를 데리고 다니면서 죽은 전사자들의 영혼을 발할라(Valhalla)로 인도한다. 오딘은 미리 예언된 세계의 종말에 닥쳐올 싸움에 대비해서 용감한 전사자

¹³ 김 철, 「낭만주의 음악에 관한 연구」, 『예술연구』 제2집, 1989, 36쪽.

들의 영혼을 발할라에 모으고 있다. 바그너는 이 신화에서 발퀴레와 발할라를 인용하고 있다. 바그너는 발퀴레를 보턴의 딸로 설정하고 그중 가장 총애하는 딸로서 브린힐데를 등장시킨다. 발할라를 신들의 궁정이자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발할 성으로 변화시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¹⁴

바그너의 음악 속 등장인물들은 신화 속 인물들이었다. 신화 속 인물들을 통하여 바그너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의 세계를 표현하였고, 이를 음악 속에 담았으며, 혁명을 꿈꾸었고, 미래의 음악을 논하였다.¹⁵ 또한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의 대표 작곡가인 슈만(Robert Schumann)의 경우에도, 음악을 통하여 시적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슈만의 대표곡이 〈어린이의 정경 *Kinderszenen*〉, 〈시인의 사랑 *Dichterliebe, Op. 48*〉 등의 제목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인간의 감성들이 음악의 주된 주제였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슈베르트(Franz Schubert)와 같은 낭만주의 작곡가는 음악이 인간의 영혼을 담아내는 장르임을 주장하였으며, 자신의 감정과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르로 음악을 꼽았다.¹⁶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상들과 결부되어 있던 이전의 음악으로부터 벗어나 19세기 낭만주의 음악들은 신비와 초월, 사랑, 감정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가치들을 담아내는 음악으로 변이하였고, 구텐베르크 은하계는 이러한 음악적 흐름을 선택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은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지식의 흐름이 곧 구텐베르크 은하계가 조성한 환경과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음악의 변이에 있어서도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음악들이 당시의 환경과 적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그너의 음악 속 등장인물들은 신화 속 인물들이었다. 신화 속 인물들을 통하여 바그너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의 세계를 표현하였고, 이를 음악 속에 담았으며, 혁명을 꿈꾸었고, 미래의 음악을 논하였다.¹⁷

¹⁴ 이성률,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극: '라인골드'를 중심으로」, 『서양음악학』 제9권 1호, 2006, 21쪽.

¹⁵ 위의 책, 9쪽.

¹⁶ 이미배, 「슈만 성격소품의 음악 양식적 정의를 위한 시론」, 『음악학』 제23권 0호, 2012, 9쪽.

¹⁷ 위의 책, 9쪽.

인쇄술이 인간에게 제공한 ‘새로운 시각적 공간’은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존재하던 음악 안에 일상이 아닌 초월적 공간을 새로이 형성시킨다. 인간은 음악 안에서 일상이 아닌 초월을 발견하고, 음악을 통해 일상의 일탈을 꿈꾸게 되었다. 책 속에서 촉발된 초월적 신세계가 음악 안에서 음이라는 재료를 통하여 새로이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쇄술의 영향과 함께 등장한 낭만주의 음악은 음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형성시킨다. 낭만주의 음악 속에 담겨진 초월과 스토리 등은 구텐베르크 은하계가 사회 전반에 형성시킨 하나의 흐름이었다. 구텐베르크 은하계라는 환경 속에서 음악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미디어와 음악

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음악의 등장과 변화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주제다. 그러나 새로이 등장한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 현상을 야기 시킨 본질적 요소를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조금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현상의 뿌리가 되는 역사 고찰을 통하여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학문의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 진화의 전환점이 된 인쇄술로 돌아가 미디어와 음악의 상호성을 새로이 고찰하는 본 연구는 미디어와 음악 연구의 역사성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행해질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음악들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음악 관점에서는 음악이라 수용할 수 없었던 소음, 기계소리, 인간의 말소리 등이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례들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음악의 등장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가 제공한 새로운 환경이 음악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했기에 초래된 현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을 정의함에 있어 미디어 환경과 음악과의 상호성이 인정되고 수용된 새로운 관점의 등장이 절실하다.

이를 증명하는 첫 걸음으로 본 연구는 인류 역사에 있어 최초로 나타난 ‘보편적’ 미디어라 할 수 있는 인쇄술과 이에 따라 변화한 음악의 내적 요소

들을 고찰해보았다. 이 짧은 논문으로 인쇄술과 음악의 상관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와 음악, 특히 예술 음악이라 인식되고 있는 서양 음악의 연결고리를 소개한다는 점에 있어 본 연구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서양 음악은 선율, 리듬, 화성의 3요소로 정의되어 왔다. 음악의 성격을 정의하는데 음악의 시간성을 담당하는 리듬, 음과 음 간격을 의미하는 화성 그리고 음악의 흐름을 인식하게 해주는 선율이 가장 주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마치 서양음악은 음악을 위해, 음악에 의해, 음악만을 위한 음악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20세기 음악을 통해 시도된 음악의 다양한 현상들은 기존의 믿음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가히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존 케이지(John Cage)의 4분 33초와 같이 아무런 소리가 없는 침묵을 음악이라 일컫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악을 음악이라는 영역 안에만 한정짓는 것이 아닌 음악과 환경, 음악과 음악, 음악과 인간이라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성 안에서 바라보는 학문적 흐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미디어는 음악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음악을 음악이게 음악의 한 요소로서 존재한다. 미디어가 지식과 정보의 질과 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인쇄 악보를 통해 전해지는 음악 또한 미디어에 의해 변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맥루언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문구를 통하여 미디어가 정보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 당시 많은 이들은 맥루언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었으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맥루언의 주장은 오히려 평이하게 다가온다. 스마트폰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듯 보이는 현상은 이제 세계 공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미디어와 음악의

¹⁸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7.

상호성을 인정하는 것은 음악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과제로 보인다.

미디어의 관점에서 볼 때, 미디어와 함께 등장한 대중음악, 영화 음악과 같은 장르의 음악들과 미디어의 상호성을 연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양 음악의 경우, 음악과 미디어의 상호성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어디로 잡아야할지 난감한 것은 대부분의 음악학자들이 겪는 고민이다. 첨단 미디어의 등장 이전, 구술, 필사, 인쇄로 이어진 미디어의 진화 또한 함께할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서양 음악의 역사성이 오히려 상호성이 간과된 채 유지된 오랜 역사 서양 음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견고하게 쌓여온 역사성은 콘텐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늠케 하는 초석이 된다. 그러나 단 하나의 관점만을 가진 역사는 없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관점은 반드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환은 역사를 과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역사 혹은 미래의 역사로까지 변모시킨다. 기존의 역사를 새로이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은 서양 음악 속에 내재된 역사성을 새로이 할 뿐 아니라 서양 음악의 미래를 가늠케 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미디어 환경과 음악의 상호성, 특히 음악의 내적 성격이 미디어의 영향을 통하여 변화하고, 구체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오늘날 뉴 미디어 시대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발판을 제시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 현상들의 본질을 추적해보면 이미 그 뿌리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전 세대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한다. 추상적이기에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보이는 음악 안에 인쇄술이 심어놓은 새로운 성격들이 내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오늘날에 이르러 어떻게 진화하였는지 발견하는 작업은 과거를 통해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Ellul, Jacques. 『무의미의 제국』, 하태환 역, 대전: 대장간, 2013.
- Groom, Nick. "The Condition of Muzak", *Popular Music and Society* 20(3), 1996.
- MacLuhan, Marshall. 『미디어의 이해』, 박정규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7.
- Ong, Walter.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5.

논문

- 김 연. 「악보 인쇄술의 발전 과정」, 『낭만 음악』, 1996.
- 김영룡. 「뮤즈가 글쓰기를 처음 배울 적에-미디어 생태학의 구술성/문자성 논의와 시적자아의 공간화」. 『외국문학연구』 제36집, 2009.
- 김 철. 「낭만주의 음악에 관한 연구」, 『예술연구』 제2집, 1989.
- 김효경, 변혁, 「인쇄 악보에 관한 미디어적 고찰; J.S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푸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제16권 10호, 2016.
- 민은기, 「인쇄술의 발달이 16세기 서양음악사회에 미친 영향」, 『음악과 민족』 제28집, 2004.
- 이미배, 「슈만 성격소품의 음악 양식적 정의를 위한 시론」, 『음악학』 제23권 0호, 2012.

Abstract

Gutenberg Galaxy and Music

KIM, Hyokyung

Sungkyunkwan University

Alte Musik Seoul

Marshall McLuhan, a media scholar, created the word Gutenberg Galaxy meaning the new environment formulated by printing technic and he insisted that it changed human life entirely. In the history of human, the media evolved into printing technic through oral and transcription. This evolution of media and the environment created by the media are the most important point of McLuhan's theory. He sees the world as the result of media evolution. In McLuhan's sight, Gutenberg Galaxy is the first environment composed by the media. Based on the McLuhan's theory, this study focused on the environment created by the media and applied it into the western music history. The link of the Gutenberg Galaxy and the western music, especially in romantic era, will be the main subject of the study.

The Book is the most representative media of the printing technic. In the era of oral and transcription, the communication was limited by the spatial restriction. However, the book was free to spatial condition and this character of the book made the knowledge free. The knowledges delivered by the oral and transcription were mostly the matter of mundane world because they are so close to the human life, even though they are narrating about the God's world. The book, free to expanding the knowledge beyond the world, made the knowledge transcendent and expanded the sight of the humans into the transcendent world.

The modern western world is the product of the expanded knowledge by the book and so does the music. In the time of printing technic, the music begun to gain the population by the printed sheet music. As delivering the music through the printed sheet, the music received transcendence and mystery as meeting the spirit of the times. This link formed by the time of Gutenberg Galaxy will be the main focus of the study and it will prove the link between the media and the western music.

Keywords

Mcluhan, Media, Gutenberg Galaxy, Printing technic, Printed Sheet Music, Western Music, Romantic Music
